

## 05. <잠깐 개념정리 둘! 객관적 태도와 갈등>

### 1). 객관적 태도.

소설 문제를 풀다가 보면 선지에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해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

**이 '객관적 태도'란 것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해서 냉정하고 차갑게, 즉 ⊖로 딱 멀리 떨어져서 대상을 ⊖하게 서술한다는 거구나! 즉, 서술자와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먼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 ( O, X ) 판단해보시오!

-----

잘 생각해보시고!

-----

정답은 'X'다. 이것은 완벽하게 잘못 본 것이다. Why? 객관적 태도는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 혹은 '멀다'의 개념으로 들이밀면 잘못된 것이다. 방금 밑줄 쳐서 적어준 문제처럼 ⊖로 대상을 보는 것이라면 이건 이미 그 자체가 '객관적 태도'가 아니라 '주관적 태도' 인거지! ∴ 객관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관찰자적 입장', 즉! 인물의 내면심리, 생각 따위를 서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 혹시 제시문에서 인물 내면 심리, 생각 따위를 보여주거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객관적 태도는 안 된다고 보고 들어가는 것이지!

### 2). 갈등의 근본 원인.

조성기 「창선감의록」으로 2003학년도 수능에서 기출 되었던 문제를 보면서 한번 공부해보자.

-----중략-----

이를 난향이 창밖에서 엿듣고 심씨에게 고한대, 심씨 시비(侍婢)를 시켜 소저를 잡아 와서 꾸짖기를, “네 년이 감히 흉심(凶心)을 품고 진이와 함께 장자(長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천한 중 취선과 모의한 것이 아니냐?” 하니, 소저가 당혹하여 말도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흘릴 따름이라. 심씨 또 화진 공자를 오라 하여 마당에 꿰리고 큰 소리로 죄를 묻기를, “네 이놈 진아, 네가 성 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선친(先親)을 우롱하여 적장자(嫡長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 하늘이 돕지 않아 대사(大事)가 틀어졌더니, 도리어 요망한 누이와 흉악한 종과 함께 불측(不測)한 일을 피하였도다.” 하니, 공자가 통곡하며 우러러 여짜오되, “사람이 세상에 나매 오륜(五倫)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지간이 더욱 중하니,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 소자 선친의 혈육으로 모부인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누이가 비록 취선과 말하긴 하였으나 사사로운 정을 나눔이 큰 죄 아니고, 혹 원망의 말이 있었어도 취선이 하였지 누이가 하지는 않았으니, 바라건대 모친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베푸소서.” 소저 여짜오되, “큰집 작은집이 모두 혈육이니 이 자리를 빼앗고 저 사람과 협

력한다는 말씀은 만만부당하나이다.” 하니, 심씨 크게 노하여 쇠채찍을 잡고 소저를 치려 하니, 공자는 방성대곡(放聲大哭)한대, 화춘의 부인 임씨가 심씨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니 심씨 더욱 노하여 노비로 하여금 공자를 잡아 내치라 하고, 임씨를 꾸짖어, “너도 악한 무리에 들어 나를 없애려 하느냐?” 하더라. —————이하 생략—————

26. 윗글에 그려진 갈등의 근본 원인은?

- ③ 심씨가 가문 내에서 화춘이 지닌 장자로서의 권한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 ④ 심씨가 남편과 다른 두 부인이 죽은 후, 두 부인의 소생(所生)들을 배척한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 당시에 나는 답을 ③으로 했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남았던 것은 심 씨는 나쁜 사람이고 끊임없이 화진과 화빙선을 때리고 핍박하기만 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④을 했었다. —————>싸대기! 우선 답이 ④이 되려면 제시문에서는 화진과 화빙선이 심씨가 배척하고 구박하는 것에 대해 ‘왜 우릴 구박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따지면서 이것을 가지고 갈등했었어야 한다! 근데 실상 제시문에 나온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

실상 제시문에 나온 내용은 ‘장자의 자리’, ‘적장자 자리’ 등등 이었던 것처럼, ‘장자 자리’ 를 심씨가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화진과 화빙선을 그렇게 두드려 뺐던 것이다. —> 즉, 갈등의 근본 원인은 ‘장자 자리’ 인 것이다. 그래서 답은 ③인 것이다.

그럼 아까 ④은 뭘까? ④은 갈등의 ‘원인’ 이 아니라, 갈등의 ‘상황’ 일 뿐이야!!!

06. <간접제시, 직접제시 /// 간접인용, 직접인용> 정리하겠습니다!

간접인용: ~라고 했다. ex) 선생님이 입학사정관인 자기 삼촌이 자소서 대필은 바로 탈락이라고 말했다.

직접인용: “ ” 라고 했다. ex) “아따, 시방~.” 라고 했다.

간접제시: 대화나 행동을 보여주는 것.

직접제시: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는 것. 가령 사건 요약이나 내용을 말해주는 것. 알겠지?

내가 이것을 왜 재수할 때 정리 했었냐면, 문제를 풀다보면 “ ” 된 부분을 두고 이게 간접제시인지, 직접 제시인지 많이 헷갈렸었거든. 왜 그랬냐면 ‘인용과 제시’의 차이점에서 온 현상이었지. 무슨 말이나면 가령, 「까토리 하는 말이 “죽은 낭군 생각하면 애달프다.”」 라는 예시가 있다고 하자. 이 예시는 일단 간접제시야.(인물의 대화를 보여 준 것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직접인용이기도 해.(그 인물의 육성을 “ ” 로 처리해서 생생히 따 왔으니까.)

07. <역설, 역설법, 반어법, 역설적 관점> 총정리 파파야!

학생: 선생님, 역설적 상황이 시에서 드러났냐고 물을 땐, 역설법 찾는 것 맞죠?

선생님의 답변은 무엇일까? 1번: 응 잘했어 쓰담쓰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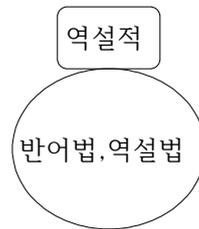
2번: 싸대기!

정답은 2번: 싸대기입니다.

역설법: 표현의 모순

=====> 역설적 상황. 즉,

반어법: 상황의 모순



이러한 포함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자 그럼 실전 문제의 선지에서 이렇게 나왔었음.

①역설적 관점에서 사물을 통찰하여 초월적 진리를 이끌어낸다.

우리가 해야할 행동은 뭘까? ----> 역설법이나 반어법 찾으라고!

08. <대화와 대화체>에 관해 마지막 총 정리 파파야!

대화와 대화체는 범주 자체가 달라. 대화는 <구성>에 속하고, 대화체는 <표현방식>에 속해.

<구성> 대화 = 대화적 구성 = 대화 형식

즉, 주고받는 말이 있어야 함. 실제로 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표현 방식> 대화체 = 말을 건네듯이

즉, 대화하는 형식을 취한 말투야. 실제로 대화하지 않아도 ‘대화체’ 일 수 있다구!

## 12. <섬세한 언어의 개념, ‘동조’ >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에 남영로의 「옥루몽」을 통해 알아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양창곡의 연인이었던 강남홍은 그와 이별 후 백운 도사에게 무예를 배워 오랑캐의 장수가 되어 남장을 하고 명나라 원수 양창곡과 전장에서 맞서게 된다.

강남홍이 옥 같은 손을 들어 화살을 쏘니 시위 소리와 동시에 동초와 마달 두 사람의 갑옷이 쟁그랑하고 깨졌다. 두 장수가 더 싸울 뜻이 없어 말을 돌려 진영으로 돌아왔다.

<A> [뇌천풍이 투구를 주워 다시 쓰고 벽력부를 휘두르며 크게 꾸짖었다. “조그만 오랑캐 장수야! 작은 재주만 믿고 무례히 굴지 말라.” 그리고는 다시 강남홍에게 달려들더니 홀연 몸을 솟구치며 말에서 떨어졌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회를 보시라. ————이하 생략——— ]

29. <보기>에서 [A]에 활용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고전소설에 구현된 다양한 관습적 장치는 고전소설의 중요한 형식적 특징이자 독서법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기도 하다. 「옥루몽」에 사용된 관습적 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ㄷ.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가 들어간 논평.

여기서 문제! ㄷ은 정말 활용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 (0,X) 부탁드립니다~

잘 생각하시고!!

정답은 X야. Why? 근거가 중요해! 일단 ㄷ을 푸는 열쇠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회를 보시라.’에 있어. 여기서 ‘심정적’이란 말이 틀린걸까? 저기에 서술자의 감정은 안드러나니까? ————> 싸대기!!! 그럼 뭐가 틀린 걸까?

ㄷ보기를 일단 다시 보자.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가 들어간 논평. 으로 끊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심정적**은 **△**야. **애매**하다구! (심정적이냐 아니냐를 저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애매한 구석이 있어.) But!!! ‘**동조**’는 **빠**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게 틀린 말이야. why? 동조가 되려면 예를들어, ‘**아이고 그래, 넌 정말 불쌍하구나.**’ 이 정도로 남의 감정에 동조해주는 내용이 필요해. 근데 지금 <A>부분에서는 그런 것은 없거든.

∴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동조’란 섬세한 개념을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야.